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2, pp.149-153, May 31, 2018.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18.4.2.149
JCCT 2018-5-19

선행하는 행(行)에 의해 긴장되는 시조: 왕방연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The Sijo Strained by the Preceding Line: Focusing on the Works of Bang-yeon Wang

박인과*

Park In-kwa*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시조의 긴장의 유형을 문학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왕방연의 시조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왕방연의 시조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논의해 보기로 하는 것이다. 왕방연의 시조는 수식어가 다음 문장에 긴장을 일으키며 의미를 전달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틀은 문학치료의 프로그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왕방연, 긴장의 조건, 문학치료, 선행하는 수식어, 문장의 전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tively utilize the type of tension of Sijo in literary therapy programs. I will examine the Sijo of the Bang-yeon Wang. The Sijo of the Bang-yeon Wang is not known much yet, so we will discuss it. The Sijo of the Bang-yeon Wang has the effect of conveying the meaning while the modifier tensions the next sentence. This literary framework can be useful for literary therapy programs.

Key Words : Bang-yeon Wang, Conditions of Tension, Literary Therapy, Precedent Modifier, Transference of Sentence

Ⅰ. 서 론

왕방연은 단종에게 사약을 가지고 간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런지 왕방연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고전문학의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의 시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뇌와 고통의 세월을 시절가조로 읊었던 그의 긴장이 시조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문학작품을 통하여 고통스런 삶의 시간을 견뎌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천만리 머나먼 길에」의 작품은 단종을 슬프게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읊은 것으로써 통곡의 문장과 같다. 이런 문장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런 문장의 형태가 다른 작품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다

*정회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접수일자: 2018년 3월 3일, 수정완료일자: 2018년 4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4월 17일

Received: March 3, 2018 / Revised: April 5, 2018
Accepted: April 17, 2018
*Corresponding Author: born59@hanmail.net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Korea

른 논의들은 제외하고 문학적인 논의만을 진행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선행하는 수식어가 다음의 문장에 긴장을 일으켜 문장의 전이를 완성하는 단계에 있음을 밝혀갈 것이다. 이 문장의 전이적 기제가 왕방연의 고뇌와 고통을 지워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본 연구자가 진행해온 논문들[6-27]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신경생리학적[1-3, 5] 서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인체의 감정에 관한 연구들[28-30]의 결과들이 본 연구의 치유적 논의들을 방증하고 있다.

II. 긴장의 조건

왕방연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조들을 창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단지 전해진 그의 시조들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왕방연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시조(이하 왕방연의 시조)들은 모두 6수이다. 6수중에서 작가를 왕방연이라고만 알려주는 작품은 3수 정도이다. 나머지 3수는 다른 작가의 이름으로도 많이 발표된 시조들이다. 이렇게 같은 작품들을 여러 사람이 읊었다는 것은 고시조의 전래 상 같은 시조를 다양한 사람이 읊을 수 있었던 사회적 현상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고시조대전古時調大全』(2012)[4]은 고시조들을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독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수록하고 있다. 그래서 『고시조대전古時調大全』(2012)[4]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시조의 행간은 긴장되는 감정의 행간임과 동시에 독자의 감정의 행간이다. 왜냐하면 시적 행간이 긴장하면 독자의 감정도 긴장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조의 문장이 긴장한다는 것은 독자의 감정이 긴장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문장의 전이에 의한 문학치료의 효과이다.

왕방연은 시조의 3장을 두 문장으로 만드는 것을 즐겨했다. 이때 시조의 3장에서 한 장은 다음 문장을 수식하게 된다. 수식을 받는 문장은 선행하는 수식어에 의해 긴장하게 된다. 선행하는 수식어의 장도 긴장한다. 수식하는 장이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다음의 문장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식을 받는 문장도 수식하는 장에 의해 조율되고자 긴장하는 것이다. 이때 문학치료가 이루어진다. 치유의 효과는 수식하는 장이 수식을 받는 문장으로 긴장을 전이시키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긴장의 조건으로써의 '선행하는 행의 수식'은 문장의 전이의 형식으로 독자의 삶에 생명력과 환희를 부여한다. 이것이 문장의 전이에 의한 치유의 효과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부터 왕방연의 시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고시조대전古時調大全』(2012)[4]의 537쪽에 게재된 시조이다.

서상에 기약한 임이 달 돋도록 아니 온다
지게문 반만 열고 밤 들도록 기다리니
월이코 화영이 동하니 임이 오나 여겼노라

이 작품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서상에 기약한 임이 달 돋도록 아니 온다"와 "지게문 반만 열고 밤 들도록 기다리니 / 월이코 화영이 동하니 임이 오나 여겼노라"의 두 문장이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중장이 종장을 수식하는 형태이다. 이때 중장은 종장에 긴장을 전달하는 행으로 존재한다. "밤 들도록 기다리니", "화영이 동"했다고 한다. "밤 들도록" 기다리면서, "화영이 동"하는 순간이 긴장의 순간으로 머물게 된다. 다음은 『고시조대전古時調大全』(2012)[4]의 343쪽에 게재된 시조이다.

말은 남에게 부치고 이한 일은 내게 부치면
그 사람을 언감사산이라 하나니
대장부 그런 후에 간교한 소인을 면할쏘냐

이 작품도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은 남에게 부치고 이한 일은 내게 부치면 / 그 사람을 언감사산이라 하나니"와 "대장부 그런 후에 간교한 소인을 면할쏘냐"의 두 문장이다.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은 초장이 중장을 수식하는 형태이다. 이때 초장은 중장에 긴장을 전달하는 조건의 행으로 존재한다. "이한 일은 내게 부치면", 그 사람을 "언감사산"이라고 한다고 한다. "내게 부치면", "언감사산"이라고 한다는 그 순간이 긴장의 순간이다. 앞의 행의 조건에 의해 뒤의 문장이 긴장하는 경우이다. 다음은 『고시조대전古時調大全』(2012)[4]의 459쪽에 게재된 시조이다.

북소리 들리는 곳이 멀다 한들 얼마 멀리
청산지상이요 백운지하라
그곳에 경개 좋으니 놀고 갈까 하노라

이 작품은 “북소리 들리는 곳이 멀다 한들 얼마 멀리 / 청산지상이요 백운지하라”와 “그곳에 경개 좋으니 놀고 갈까 하노라”의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문장은 초장이 중장을 수식하는 형태이다. 이때 초장은 중장에 긴장을 전달하는 수식어로 존재한다. “북소리 들리는 곳이 멀다 한들~”, “청산지상이요 백운지하라”라고 한다. “멀다 한들”, “청산지상”이 되는 그 순간이 긴장의 풍경으로 떠오르게 된다. 다음은 『고시조대전古時調大全』(2012)[4]의 856쪽에 게재된 시조이다.

임고대하여 장안을 굽어보니
운리제성은 쌍봉걸이요 우중춘수 만인가로다
아마도 성군덕음에 신민이 태평이로다

이 시조는 “임고대하여 장안을 굽어보니 / 운리제성은 쌍봉걸이요 우중춘수 만인가로다”와 “아마도 성군덕음에 신민이 태평이로다”의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문장은 초장이 중장을 수식하는 형태이다. 이때 초장은 중장에 긴장을 전달하는 수식어로 존재한다. “~장안을 굽어보니”, “~우중춘수 만인가”라고 한다. “굽어보니”, “만인가”인 그 순간이 긴장의 시간으로 머물게 된다. 다음은 『고시조대전古時調大全』(2012)[4]의 877쪽에 게재된 시조이다.

자네 몇 백년 살려 하고 두고도 저다지 다라온고
사람이 죽어서 세상에 다시 올까
남은 평안치 아니하여도 자네나 잘 먹고 지내소

이 작품도 “자네 몇 백년 살려 하고 두고도 저다지 다라온고 / 사람이 죽어서 세상에 다시 올까”와 “남은 평안치 아니하여도 자네나 잘 먹고 지내소”의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문장은 초장이 중장을 수식하는 형태이다. 이때 초장은 중장에 긴장을 전달하는 수식어로 존재한다. “~저다지 다라온고”, “사람이 죽어서 세상에 다시올까”라고 한다. “저다지 다라온고”, “세상에 다시 올까”인 그 감정이 긴장의 순간에 머물러 있게 된다. 다음은 『고시조대전古時調大全』(2012)[4]의 994쪽에 게재된 시조이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임 여의옵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아이다
저 물도 내 안 같도다 울어 밤길 예놋다

이 작품도 앞의 시조들과 같이 초장이 중장을 수식하며 긴장을 전달하고 있다. 즉, 선행하는 수식어에 의해 다음 문장이 긴장되고 있다. 선행하는 수식어는 독자의 감정의 행간이다. 왜냐하면 선행하는 수식어가 긴장하면 독자의 감정도 긴장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행하는 수식어가 긴장한다는 것은 독자가 긴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자가 긴장한다는 것은 문학치료의 효과이다.

III. 수식하는 행(行)의 위치

왕방연 시조의 수식하는 행의 위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왕방연의 시조들은 초장이 중장을 수식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초장이 중장을 수식하는 구조는 초장이 중장으로 긴장을 전이시켜, 이 전이된 감정이 중장을 통하여 종장으로 체계화되게 한다. 그리고 중장이 종장을 수식하는 경우는 초장에서 종장의 결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암시하여 종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중장에서 종장에로의 긴장의 응축이 급격하게 진행된다.

초장이 중장을 수식하는 구조이든 중장이 종장을 수식하는 구조이든 모두 선행하는 수식어에 의해 다음 문장이 긴장하고 있다. 즉 선행하는 수식어는 다음 문장에 긴장을 전이시키며, 이 긴장에 얹혀 시적 의미도 전달된다. 특히, 「천만리 머나먼 길에」는 이러한 전이의 효과가 초장에서 중장으로 그리고 중장에서 종장으로 점점 더 고조되어 간다. 이러한 형식이 시조가 주는 치유 효과의 백미이다. 치유의 효과는 수식하는 장이 수식을 받는 문장으로 긴장을 전이시키기 때문에 나타난다.

표 1. 수식하는 행(行)과 수식받는 행(行)

작품	수식하는 행	수식받는 행
서상에 기약한 임이	중장	종장
말은 남에게 부치고	초장	중장
북소리 들리는 곳이	초장	중장
임고대하여	초장	중장
자네 몇 백년 살려 하고	초장	중장
천만리 머나먼 길에	초장	중장

Ⅳ. 결 론

시조의 수식어의 장은 긴장하는 상태에 있으며, 그 긴장은 시조의 다음 장에 전달된다. 이 긴장에 얹혀 시적 의미가 전달된다. 이러한 과정은 문학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치유의 효과는 수식하는 장이 수식을 받는 문장으로 긴장을 전이시키기 때문에 나타난다.

시조의 행간은 긴장되는 감정의 행간임과 동시에 독자의 감정의 행간이다. 왜냐하면 시적 행간이 긴장하면 독자의 감정도 긴장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조의 문장이 긴장한다는 것은 독자의 감정이 긴장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문학치료의 과정이다.

시조의 이러한 긴장의 틀은 문학치료의 프로그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Baars Bernard J and Gage Nicole M. (2010)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1E, B. G. Kang trans, Seoul : Kyobo Books.

[2] Bryan Kolb, Whishaw Q lan (2012). An Introduction to BRAIN AND BEHAVIOR, H. T. Kim, M. S. Kim, J. J. Kim co-trans, Seoul : Sigma Press.

[3] Cooper Geoffrey M and Hausman Robert E, (2011). THE CELL A Molecular Approach, J. S. Jeon et al, trans, Seoul : World Science.

[4] H. G. Kim, H. T. Lee, S. W. Lee, Y. C. Kim, S. H. Kwon, K. S. Shin, G. H. Park compiled (2012), *Perfection of Ancient Korean Sijo*, Seoul: National Cultural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5] H. S. Min, K. J. Chang, O. R. Kwon, S. Y. Lee, H. M. Lee, H. A. Kim (2011). Human physiology, Paju : Yangseowon.

[6] I. K. Park. (2015).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rapy Using Sijo.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1)*, 37-64.

[7] I. K. Park. (2015). A study on Transfer-Litera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Literatherapy, 5(1)*, 85-106.

[8] I. K. Park. (2015). Structuration of literatherapy transi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2)*, 21-36.

[9] I. K. Park. (2016). A Study on the Right Writings for Sijo - the Korean Poetry of a Fixed Form.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1)*, 13-33.

[10] I. K. Park. (2016).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rapeutic Use of Sij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11] I. K. Park. (2016). A Study of Literary Therapy on the Rated Sijo as a Conductor that Works the Motherboard of Mind.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4)*, 31-40.

[12] I. K. Park. (2016). Literary Therapeutic Mechanism Analysis in which the Rated Sijois Encoded as a Battery of Lif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4(4)*, 45-50.

[13] I. K. Park. (2017). Sijo Literature Therapeutic Research on Structuring of Emotion-DN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5(1)*, 26-31.

[14] I. K. Park. (2017). A Study on Sijo Literature Therapy structuralized in the Rated Cod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5(2)*, 9-18.

[15] I. K. Park. (2017). A Study on the Structure of Rated Sijo which is the Korean Poetry of a Fixed Form.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3(3)*, 7-19.

[16] I. K. Park. (2017). A Study on the Literary Therapeutic Functions of Ancient Sijo that Ends without a Predicat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8)*, 225-230.

[17] I. K. Park. (2017). A Study of the Sijo's Literary Therapeutic Function concentrating on the Twelfth Sound Step.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8(4)*, 403-428.

[18] I. K. Park. (2017). Therapeutic Functor that calls semantic Argument -Focusing on the compound nouns in Sijo.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5(3)*, 35-39.

[19] I. K. Park. (2017). A Study on Literary Therapeutic Codes of Sijo Fused by Transfer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167-172.

[20] I. K. Park. (2017). A Study on Literature Therapy Codes Encoded by Auditory Stimuli Transferred from Cho Ji-Hoon's Poem *If I Blow a Flut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8(5), 467-482.

[21] I. K. Park. (2017). The Semantic Structure of Synaptic Activation, Likened to Cho Ji-Hoon's Poem 'Lin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3(4)*, 21-26.

[22] I. K. Park. (2017). A Study on the Encoding of Literature Therapy in the Third Line of the Poem 'Morning' Written by Cho Ji-Ho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3(4)*, 123-129.

[23] I. K. Park. (2017). The Layer of Emotion that Makes up the Poem "Falling Flowers(落花)" by Cho Ji-Ho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5(4)*, 1-9.

[24] I. K. Park. (2017). Encoding of sentences appearing in Cho Ji-Hoon's poem "White nigh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5(4)*, 31-37.

[25] I. K. Park. (2017). A Study on Literature Therapy Structures Encoded to Genetic Cipher Location: Focusing on the Sadness Motif that are Carved on the Cho Ji-Hoon's Poem "Short Melodies of Grass Leaf"".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8(6)*, 1269-1284.

[26] I. K. Park. (2018). The Structure of Healing in the Functor and Semantic Arguments Appearing in the Poem *"Bellflower Flower"* by Cho Ji-Ho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1)*, 275-278.

[27] I. K. Park. (2018). The Argument Structure of Healing Encoded at the Functor Location - Focusing on Cho Ji-Hoon's Poem Woma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1), 989-998.

[28] PNAS. (January 14, 2014). *Bodily maps of emotions*. http://www.pnas.org/content/111/2/646.full.pdf

[29] Y. B. Chae. (November 26, 2017). *Changes in body sensation-Results of observations of changes in human emotions*. THE MINJOK MEDICINE NEWS.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96

[30] Seoul Newspaper. (November 25, 2017). *What happens in my head when I'm excited about music*. DAUM. http://v.media.daum.net/v/20171125120108616?rcmd=m